

더 가까워지는 세상



안녕하세요. 저는 수잔 버클리(Susan Buckley)이고요,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는 평신도 마리아니스트 입니다. 저는 원탁의 성모님 (Our Lady of the Round Table)이라는 가상/사이버 평신도 마리아니스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지 15년 되었습니다.

저희 공동체 구성원은 4 대륙에 걸쳐 살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니스트 간의 연결과 유대 이외에도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에 대해 배우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

지난 4년간 우리는 줌 (Zoom) 앱을 통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멈췄을 때, 특히 일상생활에서 줌 앱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.

코로나 대유행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, 개인적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가상 마리아니스트 모임에 나갈 수 있었고 세계 기도의 날 (World Day of Prayer), 마리아니스트 가족 모임 (Marianist Family Encounter), 마리안 테라리움 (Marian Terrarium: Workshop), 등 여러 워크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이곳 아일랜드에서는 교회가 수 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했는데, 저는 세계 어디서든 웹캠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. 가끔은 샌앤토니오의 쿠퍼티노나 홀리로저리 교구의 형제님들과 함께하기도 합니다.

지난 8월 가상 평신도 마리아니스트 회의에 참석한 것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. 더블린에 있는 집에 앉아 미국에 있는 평신도 마리아니스트와 함께 할 수 있었고 확실히 모두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

마리아니스트 공유 분별의 해도 매우 긍정적으로 집중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. 저희 소울 시스터 (Soul Sister) 공동체는 줌 앱을 통해 오후에 만나기로 해서 저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. (아일랜드가 대여섯 시간 빠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😊). 그리고 캔자스의 하베스트 워먼 (Harvest Women) 공동체와 함께한 줌 모임은 우리 마리아니스트의 여정, 과거, 현재,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, 반성하고,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

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만 마치려 합니다. 이런 행사는 우리 세상을 더 가까운 곳으로 만들고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. 우리의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진심으로 축복받았다고 느낍니다.



학교를 떠나며....



지난 6 월 제 아들 네일(Neil)이 중등학교 (고등학교) 6 학년 (한국의 고등학교 3 학년과 같음)을 마치게 되어, 저도 더블린에 있는 성 로렌스 대학교 (St Laurence College)에서 학부모이자 평신도 마리아니스트로서의 시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. 지난 4 년 동안 저는 학교 이사회에 있는 두 학부모 대표 중 하나였습니다. 이사회에서의 일은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이며, 힘들기도 했습니다. 항상 제가 부모로서 그리고 평신도 마리아니스트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, 특히, 지난 2 년 동안 학교가 가톨릭 신학에 가입하면서 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학교가 후원을 받고 있으며, 항상 교육에 마리아니스트 특성을 통합시키는 우리 마리아니스트의 정신과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. 마리아니스트 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성 로렌스 대학은 특별합니다.

